



김기자가 가다

전북 불교 포교의 새로운 희망, 조계종 전주 「참좋은 우리절」

절기상으로 계절이 바뀐다는 '처서'인 8월 23일 전주를 찾았다. 아직은 8월의 무더위와 태풍 북상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가속속으로 밀려 들었다. 전주는 김제 금산사를 본사로 조계종 제17교구 관할이다. 그러나 오늘 참배를 한 「참좋은 우리절」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산 자락에 위치했으나 제17교구 관할이 아닌 조계종 직할 교구 소속 사찰이다.

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은 좁은 농로를 따라 죽히 30분은 걸어야 닿을 수 있었다. 3층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식 사원 건물은 천태종 사찰 건축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사찰 마당에는 오늘 있을 관세음보살입상 점안불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차양을 치고 제단을 차리는 사람들이 종무원이 아닌 신도들이었다. 입구 도로에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주차를 도왔다.

이번 취재의 편의를 제공한 박성용 사무국장을 만나러 사원2층 종무실을 찾았다. 종무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환한 웃음으로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하며 인사를 건넸다. 기분이 좋았다.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간단히 신분을 밝히고 용무를 말하자 한 보살님이 직접 안내를 해주신다. 보살님의 친절함 안내로 어렵지 않게 박성용 사무국장을 만나 그간의 안부를 묻고, 오늘 취재의 방향을 설명했다. 사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고, 먼저 3층 큰법당에 올라 부처님 전 상배를 올리고, 잠시 입장하고 육자진언을 묵송했다.

종무소와 소법당, 사원 마당의 행사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삼천산의 기운 때문인지 이곳 불자들의 신심이 묻쳐진 법당이라 그런지 무더위의 짜증도 금방 내려놓을 수 있었다.

관세음보살 입상 점안법회

「참좋은 우리절」은 큰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다. 이날은 신도들의 염원을 모아 사찰입구 마당에 새로 '관세음보살 입상'을 모시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신도로 보이는 보살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는 주지 회일 스님의 집전으로 약 3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했다. 점안의식에 이어 관세음보살께 올리는 육법공양은 그동안 기자가 참관한 어느 사찰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공양에 참가한 신도들은 20-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평범한 법복을 입고 각자 한 가지씩의 공양물을 정성껏 올렸다. 바로 가정에서 조상이나 부모에게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었다. 불필요한 예법과 가식은 버리고 공덕으로 올리는 육법공양이었다. 이 절이 소박하고 정감 넘치는 사찰이라 대변해 주는 모습이다. 관음경 독송으로 점안식이 끝나자 신도



▲ 전주시 삼천동 '참좋은 우리절' 전경

들은 각자 방식을 챙겨 들고, 3층 큰법당으로 질서 있게 이동하여 일요법회와 백중 영가 천도제(총 7제 중 6제)를 봉행했다.

전북 베트남 불자회 '원오도량' 창립 법회



▲ 전북 베트남 불자회 창립법회

이날 오후에는 전북지역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과 가족 등 40여명이 3층 큰법당에서 '전북 베트남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베트남 출신 드영탄 스님과 광민 스님이 베트남 어와 자국의 불교의식으로 집전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인 「(사)착한 벗들」의 대표인 참좋은 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은 지난 2012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과 취업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착한 벗들에서 활동중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 자발적으로 베트남 전통방식의 법회를 열자는 의견을 모았다. 주지 회일스님과 착한 벗들의 간사로 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흥현주씨가 지난2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불자회 창립의 결실을 보았다.

불자회는 매월 정기법회와 지역 사찰별 순회법회를 통해 불심을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전용 법당 건립과 베트남 고승 초청 법회도 계획 중이다. 이날 모인 베트남 가족들은 서로가 언니, 동생, 이모, 삼촌으로 부르며 고향을 떠나 멀리 정착한 고달픔을 서로 달래고,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충실하기를 부처님께 기원했다.

자원봉사와 다양한 신행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참좋은 우리절이 전북 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신도들이 젊다는 것이다. 나이 많은 노장님들도 보이지만 공양간, 법회준비, 종무소, 어린이법당, 주차 봉사 등에 참여하는 신도들이 젊어보인다는 것이다. 40대가 중심축을 이루고 노장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 신행 단체를 구성하고, 신심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신행조직으로는 65세 이상의 불자들로 구성된 '미타회', 45세 이상 가사들로 구성된 '거사회', 보현보살의 행원력을 바탕으로 신행에 정진하는 보살들의 '보현회', 문수보살의 심대원을 바탕으로 신행에 정진하는 '문수회',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는 '합창단', 참좋은 우리절 불교대학을 졸업한 법우들의 모임인 '불교대학 동문회', 만 19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들의 모임인 '청년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 모임은 기도 제사 운영과 법당을 관리하는 모임인 '법당운영회', 법회를 준비 및 정리를 하는 '법회지원회', 신도들의 신행상담, 애경사를 지원하는 '법도회', 신도들의 기도 접수와



▲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3층 큰법당

종무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지원회', 공양간을 지원하는 '공양간지원회', 도량시설과 외부환경을 담당하는 '시설관리회', 불교대학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는 '불교대학 운영단'이 사찰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신도들은 사찰을 자기 집이라 생각한다. 청소부터 큰 법회까지 서로의 작은 힘을 모아 운영해 나간다.

매주 일요일 봉행되는 일요법회에는 약2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절에 온 어린이와 유아들은 소법당에서 어린이 법회에 동참하거나, 놀이방에서 자원봉사 이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신도들은 마음 편히 자원봉사와 신행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다.

신도들은 우리절에 와서는 모두가 가족이 된다.

한 가족이 되어버린 「참좋은 우리절」 신도들

참좋은 우리절의 위치는 전주 완산구 외곽에 있다. 큰 대로에서 좁은 농로길을 따라 걸어서

30분은 죽히 걸리는 산 중턱에 있다. 한마디로 접근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많은 신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뭘까? 바로 '정'이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는 마음, 부처님의 품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다. 비록 대도시의 이웃 종교와 대형 사찰 보다는 규모나 신도 수는 작지만 이 사찰만의 특별한 힘인 가족 같은 정이 큰 신행의 원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북 지역은 이웃 종교에 비해 불교의 교세가 약하다. 가까운 익산은 원불교의 성지이고, 사내전동 성당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도 교구를 이룰 정도로 그 세력이 크다. 총지종도 흥국사와 만다라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수많은 물건들이 진열된 대형 마트가 바로 옆에 있어도 언제나 구수한 정담과 인정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그 명맥을 이어가듯 불교도 우리 정서와 우리의 유전자 속에 깊이 자리한 전통시장의 단골집 같은 것이다. 언젠가 다시 올지 모르는 우리 불자들의 발걸음을 맞을 준비하고 적극적인 교화를 서두를 시가다.

전주=김종열 기자



▲ 관세음보살 입상 점안 법회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강순시	8/18	10,000
관성사	황성녀	7/29	20,000
	인선	8/24	20,000
	김병석	8/25	10,000
기로	법계월	8/5	100,000
	심지장	8/12	10,000
	원봉	8/13	10,000
	지선행	8/13	10,000
	대관	8/24	10,000
	밀공정	8/24	10,000
	법수원	8/24	10,000
	법장화	8/24	10,000
	법지원	8/24	10,000
	불멸심	8/24	10,000
	사홍화	8/24	10,000
	상지화	8/24	10,000
	수증원	8/24	10,000
	선도원	8/24	10,000
	총지화	8/24	10,000
	일성혜	8/24	10,000
단음사	법연지	8/13	10,000
밀인사	정정희	7/29	5,000

	이기상	8/10	10,000
	안옥진	8/10	10,000
	이성수	8/10	10,000
	박주연	8/10	10,000
	이수연	8/10	10,000
	이혜성	8/13	30,000
백룡사	양정현	8/6	10,000
	양지현	8/6	10,000
수인사	무명씨	7/30	10,000
실보사	이순옥	7/31	10,000
실지사	조성우	7/31	10,000
	유승태	8/12	20,000
	이순명	8/17	20,000
	박병성	8/17	20,000
일원어린이집	강경화	7/27	10,000
	권향덕	7/27	10,000
	김용미	7/27	10,000
	이향례	7/27	10,000
	이향례	8/25	10,000
	하재희	7/27	30,000
	이준동	7/27	10,000

	이현직	7/27	10,000
	이현직	8/25	10,000
	서선숙	7/27	10,000
	박문실	7/27	10,000
	김지연	7/27	10,000
	구미자	7/31	10,000
	천소영	8/12	10,000
	이준동	8/25	10,000
	김지연	8/25	10,000
운천사	이성민	8/17	50,000
제석사	이재은	8/5	10,000
	한용준	8/5	100,000
	안선민	8/5	100,000
정각사	변순개	8/10	10,000
	탁상달	8/13	20,000
지인사	승효제	8/13	10,000
	지성	8/13	10,000
	허성동	8/25	3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7/27	30,000
	황화성	8/25	30,000
	김종남	7/27	10,000

	김태윤	7/27	10,000
	김태오	7/27	10,000
총지사	법등	8/3	30,000
	이인성	7/8	30,000
	장동욱	8/5	30,000
	김병관	8/10	10,000
	구나영	8/10	10,000
	백지순	8/10	30,000
	박정희	7/21	10,000
	이인성	8/13	30,000
	신용도	8/23	10,000
	박정희	8/23	10,000
	손경옥	8/23	10,000
통리원	김평석	8/10	10,000
흥국사	지정	8/13	20,000
해정사	지성인	8/20	20,000
	최영례	8/20	10,000
화음사	방생기금	7/30	144,000
	방생기금	8/24	70,000
	무명씨	8/4	10,000
	무명씨	8/4	10,000
사원무기재			

김감선	7/20	10,000	
통리원	효강종령	8/28	2,00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문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42

생활 중의 정념 1

일상생활이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발 밑을 보라” “活在當下”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사념 수행은 체계적인 수행방법으로서 불교 수행자라면 누구나 전심전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념 수행은 앉았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부딪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떠나서는 수행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심산유곡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밥 먹고 잠 자고 용변 보는 등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무시하기

기가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의 행위를 세밀하게 주시하면 밥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기의 생각은 이리저리 달아나는 것을 알게 된다. 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어느 하나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크게 중요시 될 것은 없지만 정념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엄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자꾸만 이리저리 달아나는 생각을 잘 붙들어 매는 훈련이 정

다 떠올리며 집중하지 못한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코로 들어가는 지 모르겠다.”고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경우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진정한 밥맛도 모르게 되고 차의 깊은 맛도 음미를 하지 못하게 된다.

초심을 지니라는 것은 처음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사물을 바라보면 항상 새로운 느낌이 오며 사물을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쓸데없는 번뇌와 망집에 꼬달리지 않게 된다. 수행을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끝이 안보이는 것 같아 싫증을 내기도 하며 온갖 번뇌 망상이 들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며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퇴전을 하고 치위버린다. 《쌍웃다 니까야》 첫 머리에 보면 천신이 내려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서 저 강을 건넜느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면서 유유자적하게 건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을 건넜다는 것은 보리를 증득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멈추면 가라앉고 서두르면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는 의미로서 수행자의 수행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수행을 한다고 야단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두가 수행이라고 여기고 수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이 깊어져 있을 것이다. 큰 깨달음을 언젠가는 얻고야 말리라는 굳은 결심을 지녔으면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느긋하게 일상생활 모든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정념을 추구하다 보면 깨달음은 저절로 가까이 있게 된다. ‘초발심시변정각’이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음미해 볼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바로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며
다른 것에 주의를 돌려서는 안된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산다(活在當下)’라는 의미이다

는 어렵다. 실사 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온갖 번뇌 망상을 일으킨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정념의 수행은 외계의 사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행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절을 하고 경을 읽고 진언을 외우는 것도 수행의 방법이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에도 행주좌와(行住左臥), 어묵동정(語默動靜) 모든 것을 가부좌하여 앉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수행이라면 반드시 절복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며 앉아있어야만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수행은 우리의 생활 모든 방면이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 밥 먹고 세수하고 용변 보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마음 졸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정념의 훈련이 된다.

밥 먹을 때에는 밥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길을 갈 때는 걸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에는 자

념 수행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에는 항상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

선종에서는 나무하고 물 걷는 모든 것이 수행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 모든 행위와 동작, 언어가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가 행위하고 접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쏟아 부어 놓치지 않는 정념이 있어야 한다. 흔히 ‘마음 챙김’으로 표현되는 정념이 항상 몸에 익어야만 바른 수행이 될 수 있다. 출가승 중에 가끔 몇 안가지를 지냈더니 어쩌니 하면서 오래 앉아 있었던 경험을 자랑스레 말하며 자기의 수행이 깊다는 것을 과시하던 사람이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별척 화를 내거나 심사가 뒤뜰어진 모습을 내비치는 것을 보면 수행이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오직 앉아있는 것만을 수행으로 여기는 어려서움을 보는 것 같아 씁스레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할 때 연속극을 보고 싶어 서둘러 일을 끝내려다가 접시를 깨뜨리는 경우나 운전을 하면서 딴 생각이 몰두하거나 전화기를 만지다가 사고를 내는 것도 마음챙김을 놓치기 때문

초심을 지니라 깨달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유지 일상생활이 수행이 되어야

초심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지닌 때 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일체유정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여래청정성이다. 수행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들여다보아 탐진치로 가리어진 원래의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초심을 지닌다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초지일관 깨달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서 사물을 신선하게 바라보는 능력이기도 하다.

정념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며 생각을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차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밥 먹을 때 밥 먹고 차 마실 때 차 마시지 될 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짧은 순간에도 오만가지 생각을

다 떠올리며 집중하지 못한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코로 들어가는 지 모르겠다.”고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경우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진정한 밥맛도 모르게 되고 차의 깊은 맛도 음미를 하지 못하게 된다.

초심을 지니라는 것은 처음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사물을 바라보면 항상 새로운 느낌이 오며 사물을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쓸데없는 번뇌와 망집에 꼬달리지 않게 된다. 수행을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끝이 안보이는 것 같아 싫증을 내기도 하며 온갖 번뇌 망상이 들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며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퇴전을 하고 치위버린다. 《쌍웃다 니까야》 첫 머리에 보면 천신이 내려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서 저 강을 건넜느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면서 유유자적하게 건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을 건넜다는 것은 보리를 증득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멈추면 가라앉고 서두르면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는 의미로서 수행자의 수행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수행을 한다고 야단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두가 수행이라고 여기고 수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이 깊어져 있을 것이다. 큰 깨달음을 언젠가는 얻고야 말리라는 굳은 결심을 지녔으면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느긋하게 일상생활 모든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정념을 추구하다 보면 깨달음은 저절로 가까이 있게 된다. ‘초발심시변정각’이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음미해 볼 수 있다.

호흡으로 자기의 심신을 분명히 알기

가장 쉬운 수행은 호흡관찰
호흡관찰 만으로도 여유와 우아함이

참다운 수행을 하려면 앉아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자기의 신체 를 관찰하는 것을 통하여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앉아서 수행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을 하거나 길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놀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신체를 관찰하여 분명하게 이는 연습은 정념을 유지하도록 하며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신체를 관찰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은 호흡 관찰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호흡관찰, 즉 아나빠나 사띠를 통하여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먼저 주의력을 호흡에 놓고 정념 가운데에 자신을 놓으면 우리의 심신이 안정되면서 신체의 다른 부위의 관찰도 용이하게 된다.

밥을 먹든 이를 닦든 차를 마시던 운동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항상 호흡에 주의를 돌리고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신체의 변화도 늘 알아차리게 되어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길을 가면 간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운전을 하면 운전하고 있는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다. 신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그것이 곧 몸에 대한 정념이다.

우리의 동작은 항상 간직되거나 분주하여 그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상의 모든 행위 가운데에서 항상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체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신을 장악하게 된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러한 일상에서의 정념의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성 스트레스와 파곤에 찌들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행위들을 반복할 따름이다.

호흡관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분명한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행동거지도 우아하게 변할 뿐 아니라 품위를 갖추게 되며 터무니없는 실수도 하지 않게 된다. 호흡을 관찰하고 심신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아차림에 의하여 오감의 욕망에 끌리거나 망상과 집착으로 흐트러진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이며 생활불교이고 불교를 생활화하는 길이다.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장 쉽고 간단한 호흡관찰에서 시작하여 정념을 몸에 붙이도록 해야 한다.

初發心自警言



- ✓ 쉬운 번역!
- ✓ 간결한 표현!
- ✓ 읽기 쉬운 원문!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제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자승스님,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임기내 시삽 지장없다”

8월 25일 현판식 및 모연위원장 위촉



▲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총무원장 자승스님 임기내 기공식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25일 오전 10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및 모연위원장에 전 포교원장 혜총스

님을 위촉했다. 자승스님은 “마지막 불사 마무리는 (전) 포교원장 손에 달려 있으니 크게 노력해주시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에 혜총스님은 “중단의 막중한 일을 맡겨주셨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원

력과 심신을 가지고 총무원장 스님과 중정예하를 잘 모시고 단합된 뜻으로 매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사업추진위원회(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전법회관 7층에서 추진위원회 현판식을 봉행했다.

자승스님은 “10.27 법난 이후 어려운 산들을 위태위태 데 넘었다. 매입과정만 남아있고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해야한다.”며 “업무적 필요한 행정조치는 다 마무리했다. 임기내 완공은 아니더라도 시삽은 지장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약 1500여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예산은 200억원이 집행된다.

조계종 전법회관 자비나눔법당 부처님 새옷 갈아입다

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법당 부처님 개금불사



▲ 조계종 전법회관 자비나눔 법당

조계종 전법회관 자비나눔 법당의 부처님 금빛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지난 8월 13일(목) 오후 3시 전법회관 6층에 위치한 자비나눔 법당의 관세음보살님 개금불사 점안 및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개금불사는 불모 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보유자인 이진형씨(여진 불교조각연구소 소장)가 작업했다. 재단은 “지난 20년간 재단과 함께 자비 손길을 전하며 남루해진 부처님께 새

옷을 지어드리고자 개금불사의 인연을 모연했다”며 “부처님의 모습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맑게 하고, 나눔의 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해온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개금불사 모연에 재단 임직원 및 산하 시설 종사자들은 물론 후원자와 자원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개금불사에 동참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원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마음을 한 데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나눔 확산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중국 텐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 및 실종자 무사귀환 부상자 조속 쾌유 기원 법회



▲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봉행된 기원법회

천태종은 8월 20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홍콩세계불교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텐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 실종자 무사귀환 부상자 조속 쾌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은 법어를 통해 “중국 텐진 폭발사고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서원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7월 7일 절기상 칠석날입니다. 나 이외 세상 모든 중생들과 화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천태종 전 중도들의 기도로 하루 속히 텐진 폭발 현상이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며 사고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총무부장 월도 스님, 관문사 진철 총무스님의 집전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제가 봉행되었다. 천태종 의례와 내외 귀빈, 신도들이 동참한 천도제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했다.

천태종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천태종 관문사=김종열 기자

제9차 중국국제포교사 한국불교수행체험

중국 스님 35명 수덕사에서 수행 및 문화 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은 불기 2559(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 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불교협회 소속 국제포교사(승려) 35명(비구 23명, 비구니 12명)의 중국수행단이 한국불교수행체험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부속사업으로 매년 한중일 예비회의를 통해 개최지와 일정을 논의

하여, 올해는 한국의 “덕숭산 수덕사”에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수행체험과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후 이어지는 9월 4일부터 3박4일 기간 동안은 중국 참가단의 자체일정으로 한국의 명소를 탐방하고,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과 사찰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 스님들은 중국 호북성 오조사에서 수행체험을 했다. 올해까지 양국이 각 9차례(총18회) 방문하여 상대

국의 불교를 체험한 바 있다. 그간 초창기 수행 중심의 체험에서 양국의 불교문화와 사찰생활에 대한 이해로까지 영역을 넓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증진해온 중요한 교류 행사이다.

이번에 참가하시는 중국 스님들은 호북성, 절강성, 상해시 등의 주요사찰에 거주하시는 스님들로, 단장은 보정(普正, 중국불교협회 국제부주임)스님이다.

종단협=김종열 기자

금빛 범자로 장식된 고려 시대 목관, 극락왕생의 염원을 담다

순창 농소고분 출토 목관에서 금가루로 쓰인 300여 자의 범자 확인



▲ 순창 농소고분 범자문 목관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순창 운림리 농소고분에서 출토된 관곽(棺槨)을 조사한 결과, 관곽의 내관(內棺)인 목관(木棺)의

외면에서 금빛으로 화려하게 쓰인 300여 자의 범자(梵字)를 확인하였다.

목관의 표면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주로 사용되었던 범자인 ‘실담체’와

‘관차체’로 「육자진언(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 진언」 등 진언(眞言, 부처의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 2종이 금가루로 쓰여 있으며, 흰색의 원형무늬가 각각의 글자 바깥을

장식하고 있다. 목관에 적힌 두 진언은 중생을 구제 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현재까지 출토된 고려 시대 의 목관에서 「파지옥진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목관의 재질은 소나무이며,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결과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 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 ‘육자의귀염송’에 대한 설명자료와 강의 및 시연은 총지종 홈페이지(www.chongji.or.kr) 심층밀교, 수행법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법경 서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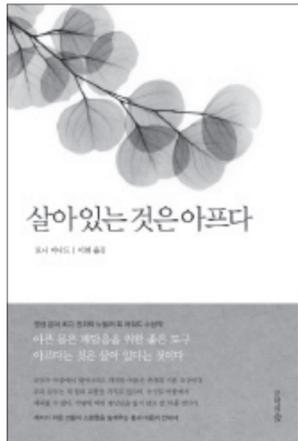
六字儀軌

총지종은 밀교종단으로서 삼십수행법을 행하고 있다. 총지종에서 행하는 삼십수행법의 의의는 ‘육자의귀염송’이라고 한다. 이 육자의귀염송을 총지종의 종도들은 아침저녁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행하는 육자의귀염송임자라도 밀교의 순법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무리하다 할 것이다. 이에 총지종 단 밀교연구소는 종도뿐만 아니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총지종의 수행법과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고난과 더불어 기쁘게 사는 방법 찾기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불교서적
에세이



큰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력 정기 검진을 받았습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큰 애 시력이 아주 나빠서 이대로 가면 어른이 됐을 때

고도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선생님은 고도근시의 위험성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실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명'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빛이 반짝이는 청명한 봄날이었지만 그날 세상 만물이 다 빛을 잃었습니다. 오직 걱정과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절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을 했습니다. 의사가 오진했기를, 지금의 현실이 사실이 아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주일쯤 기도를 했는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그렇게 불안하고 괴롭던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우리 큰 애가 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 알아 안 보여도 살 수 있잖아.' 온통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마음과 현실이 마찰을 일으켰었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뀌자 갑자기 편해졌던 것입니다. 고통은 현실을 부정하는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어떠한 현실이던지 받아들이려는 자세만 가지면 고통이 절반은 줄어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수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의 저자 토니 버나드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깨달음 또한 나의 깨달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대 교수이자 학생처장이었는데 2001년 남편과 함께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다. 독감인줄 알았던 그녀의 병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만성병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피로로 인해 이후 10여 년 동안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때로는 침대 밖으로조차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이뤄놓은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먼저 '교수'라는 직업을 잃고, 이어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친구들도 한 명씩 떠나갔습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현실에 처음 얼마동안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 했기에 이런 상태로 삶이 바뀌었는가, 하고 원망했고, 또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해결방법도 찾을 수 있기에 병을 알아내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좌절감만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자기 병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토니 버나드는 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던 삶의 태도에서 병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 찾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나는 대부분의 고통이 병으로 인한 몸의 불편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 몸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던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평정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직면할 수 있다. 평정심의 본질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록 아프긴 해도 이 몸이 깨달음의 도구가 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몸이 아픈 사실에 대해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된다. 내가 아픈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몸은 내 삶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p.78) 그녀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1992년부터 해온 불교 공부와 명상수행이 한몫했습니다. 그녀는 명상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또 직접 지도를 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그녀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는 명상 수행에 중점을 둔 책입니다. 이 책은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런 감정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로움으로 바꾸는 방법,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생각과 감정을 현재 순간에 돌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 등을 보여주면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서라벌에서 개최되는 '실�크로드 문화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실�크로드 경주 2015'



▲ 경주 엑스포 공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와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주최 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실�크로드 경주 2015'가 8월 21일(금)부터 10월 18(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경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실�크로드 주변의 20개국을 포함해 총 47개국,

1만여 명이 참여, 고대 문화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문명의 만남', '황금의 나라 신라', '어울림 마당' 3개 주제 행사를 비롯해 각종 연계 행사 등 3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비단길 · 황금길-골든 로드(Golden

Road) 21'은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주제 전시이다. 실�크로드 신화 속 상상의 동물, 아라비아나이트 등 화려한 세계로 연출되었다.

이 밖의 프로그램으로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구현을 통해 석굴암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석굴암 에이치 엠디(HMD, Head Mounted Display) 트래블 체험관', 엘이디(LED)와 입체(3D) 영상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 쇼', 고대 페르시아의 구전 서사시를 재구성한 무용극 '바실라' 등이 있다.

또한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등 실�크로드 인접 19개국이 참가하여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장터를 운영하고, 전통공연을 펼치는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도 마련되며, 실�크로드 인접 국가의 대학 연맹체인 '선(SUN: Silkroad University Network)' 창립총회, 실�크로드 대학생 문화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행사 기간 중에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실�크로드 국가 간의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메르스, 가뭄 등으로 침체되었던 지역 관광 및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안내는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054-748-301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종열 기자

문화재청 '영릉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개최



▲ 세종대왕 송모제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류근식)는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애민 정신을 배우고, 지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영릉(英陵)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를 오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추석 연휴인 9.26. 제외) 오후 2시 영릉(英陵, 세종대왕릉) 재실에서 개최 한다.

이번 강좌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생애를 비롯하여 한글 창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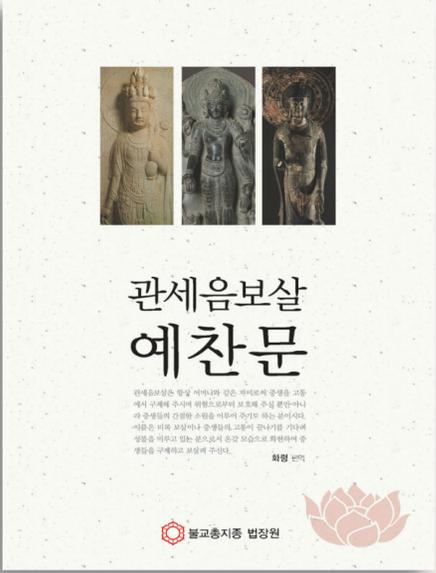
위대한 업적의 밑바탕이 된 창조정신과 애민정신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영릉(英陵)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의 가치와 특징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문화위원이자 역사 인문학자인 이상주 작가의 ▲세종대왕의 자녀교육법(9.5) ▲세종대왕의 독서 경영법(10.3)을 비롯하여 여주문화원 조성문 사무국장의 ▲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9.12.), 조선왕릉 전문가인 이창환 상지영서대학교 교수의 ▲ 세종대왕과 영릉(9.19.)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강좌는 사전신청과 현장 접수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대왕유적 관리소 누리집(<http://sejong.cha.go.kr>, 세종대왕릉 소식)을 참조하거나 전화(☎031-885-3123~4)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인문학 강좌 외에도 오는 10월 9일 한글날 등을 기념하여 ▲ '세종대왕과 함께 음악을 즐기다' 재실음악회(9~10월) ▲ 훈민정음 반포 569돌 한글날 행사(10.9.)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기리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김종열 기자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은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마니반메혹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권 이상)

환영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루어낸 공동발표문을 총지종 전 교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민간교류의 확대를 담은 이번 협상으로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 전 교도들은 남과 북의 7천만 겨레가 하루 속히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를 대중불사의 공공서원을 통해 매일 기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긴장과 위험이 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총기44년 8월 26일
불교총지종 교도 일동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4년
2015년 9월 2일
음력 7월 20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범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190호



종조멸도절 종령법어



오늘은 대한민국에 원원대도, 즉신성불의 정법밀교를 다시 꽃피우게 하신 총지중의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열반하신 지 3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밀교는 1700여년전 불교 전래와 함께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민중을 구제하고 슬한 국난을 극복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의 억불정책 속에서 밀교는 쇠퇴하고 통불교 속에서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왔던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정통밀교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영남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단아하고 고상한 품성을 물려받았으며,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과 천재성으로 어린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의 경전을 두루 익혔으며, 탁월한 문필력과 더불어 주역과 노장사상에도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성사께서는 일찍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 현대의 고등교육을 마치고는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였으나 20대에 불교에 뜻을 세우신 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중국 등을 두루 다니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려를 끝으로 사라져 버린 밀교정법이 원정대성사의 오지신력(五智神力)으로 하나 하나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한국의 현대밀교는 가나긴 잠을 깨고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비린내가 몰아치고 유혈이 낭자하던 비극의 6.25사변을 만나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쟁의 참혹함과 도탄에 빠진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총지중을 창종

하셨습니다. 원정대성사에 의해 잊혀졌던 밀교의 비법(秘法)과 경궤(經軌), 다라니(陀羅尼)와 수법(修法) 등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통불교 일색이었던 한국의 불교계에 밀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반도에 밀교라는 말을 처음으로 전파했던 분이 바로 원정대성사인 바, 이에 대한 불교사적 평가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조님의 큰 뜻과 한량없는 은혜에 보은하는 길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용맹정진하며, 한사람의 고통받는 중생이라도 구제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우리종단의 교세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전국의 중도 여러분들께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오마니반메후, 오마니반메후, 오마니반메후

총기 44년 9월 8일
종령 효강 합장

원정대성사 열반 제35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9월 8일 원정기념관 및 전국 사원에서 봉행 예정

원정대성사 열반 제35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 '원정 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봉행된다.

효강 종령 예하는 종조 멸도절 법어를 통해 "한국의 밀교는 1700여 년 전 불교 전래와 함께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민중을 구제하고 슬한 국난을 극복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의 억불정책 속에서 밀교는 쇠퇴하고 통불교 속에서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왔던 한국 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정통밀교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영남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단아하고 고상한 품성을 물려받았으며, 한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과 천재성으로 어린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의 경전을 두루 익혔으며, 탁월한 문필력과 더불어 주역과 노장사상

에도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고려를 끝으로 사라져 버린 밀교정법이 원정대성사의 오지신력(五智神力)으로 하나 하나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한국의 현대 밀교는 가나긴 잠을 깨고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비린내가 몰아치고 유혈이 낭자하던 비극의 6.25사변을 만나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쟁의 참혹함과 도탄에 빠진 중생들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을 세우시고 불교총지중을 창종 하셨습니다."라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승직자와 교도들에게 당부했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밀교의 역사를 다시 세우신 원정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에서 일직 손(孫)씨 가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

하셨고, 일제 강점 하에 고등 교육을 이수하시고, 잠시 관계와 교육계에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대성사께서는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다.

한국전쟁 직후, 진각종의 개조인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정대성사께서는 밀교수행에 준제법을 도입하시고, 새로이 총지중을 입교개종 하면서 정통밀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셨다.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교상과 사상에서 완벽한 밀교를 확립하고,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 전국에 사원을 건립하셨다. 대성사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의 정신은 오늘날 전국 교도들의 종지가 되어 불퇴전의 불공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제11회 불교총지중 한마음 경로법회 봉행 예정

9월 21-22일, 양일간 경주 대명 콘도에서 봉행 예정



▲ 제9회 한마음 경로법회(전북 부안)

올해는 전국 폭염과 중부의 긴 가뭄으로 유난히도 힘든 여름을 보냈다. 이제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불교총지중은 제11회 한마음 경로법회를 봉행한다.

먼저 오는 9월 21일 ~ 22일 양일간 경주 대명콘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65세 이상 교도 약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경로법회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교

도들로 행사 기간 동안 최대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최 측인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종단의 화합의 장을 연다. 주최 측은 교도 장기 자랑, 연예인 공연 등 참석한 교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회복지재단=김평석 교무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대구·경북교구 금강합창단

삼국유사 문화축제 '합창릴레이' 초청 공연



▲ 군위 삼국유사문화축제에 초청 공연하는 '금강합창단'

총지중 대구·경북 교구 금강합창단이 8월 21일 오후 경북 군위군 인각사에서 열린 '삼국유사 문화축제'에 초청되어 공연하였다.

금강합창단(지휘 배해근)은 군위인각사 특설무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찬불가 '정진의 노를 저어와 삼천송이 연꽃 되어' 두곡을 축제에 참가한 불자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삼국유사 문화축제는 고려의 고승 일연선사(一然禪師, 1206-1289) 말년에 군위 인각사에 주석하면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을 기리고, 온국민이 삼국유사와 우리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축제이다.

인각사 주변은 일연공원, 군위령, 장곡휴양림, 화본역(간이역)이 있어 축제와 함께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군위 인각사=단음사 권순복 통신원

원정 대성사 제35주기 멸도절

종조 원정 대성사(先淨 大聖師)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단 불교총지중을 창종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 제35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시 총기 44년 9월 8일 (화)

대상 총지중 교도 및 모든 불자

장소 총지중 원정기념관 및 전 사원



단 한명의 교도라 할지라도 불공은 계속된다

통리원장 법등 기로스승 주석 사원 방문



▲ 포항 선림사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전국은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하늘은 단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24절기로 처서가 지났어도 한낮의 더위는 살을 파고드는 햇볕을 내리 쬐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 총지종 사원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용맹정진과 교화발전을 위한 스승들의 노고가 있기에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정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8월 26-27일 양일간 기로스승들이 교화를 담당하는 사원을 방문하고 스승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첫 방문 사찰은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에 위치한 '일상사'에 참배했다. 총지종 창종 원년에 개설



▲ 경주 승천사

된 일상사는 기로스승 수월행 전수가 주교로 있다. 비록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이지만, 서원당에서 느껴지는 진인 영종의 공덕은 어느 사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법등정사는 서원당에 참배하고 일상사 교화 발전과 교도 가정을 위해 영송 정진했다. 또한 사원 구석구석을 돌아본 뒤, 당장이라도 보수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메모했다.

밀양 시내에 위치한 밀행사(주교 금강륜)를 잠시 들러 현재 진행 중인 '특락전' 공사 상황을 점검하였다. 밀양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지로 총지종의 성지(聖地)나 다름없는 곳이다. 종조께서 수많은 유교와 불교의 경전을 섭렵하시고, 몸으로 체득하신 법법을 체계화 한 교장이기도 하다.

바로 경주로 이동해 불국사 아랫마을에 자리를 잡은 '승천사'를 방문 했다. 기로스승 원봉 정사와 지선행 전수가 주석하고 있는 승천사는 총기12년 한공한 이래 경주 남동부 교회의 산실이었다.

승천사 주교 기로스승 원봉 정사는 "교도가 많이 늘지 않아 중단에 힘이 되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교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스승은 시간을 지키고, 영송정진으로 교도들을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를 서원하는 것이 근본이라 생각합니다."며 비록 몸은 나이가 들어 예전만은 못하지만, 즉신성불을 위한 용맹정진의 힘은 처음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리원장 법등정사가 다음 날 처음 방문한 곳은 경주지역 교회의 중심인 '국광사(주교 해안정 전수)'를 방문하고 올해 개보수를 시행한 공양간과 서원당 주변을 살피고, 교도들이 사용에 불편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한 교화의 어려운 점과 통리원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수계사(주교 기로스승 안주화 전수)'는 총기 2년에 교화의 문을 연 사원이다. 지금 주교인 안주화 전수가 35년간 교화에 매진한 경주의 핵심사찰이다. 세월이 변한 만큼 주변의 환경도 많이 변했다. 수계사 건너편으로 KTX 열차가 지나가고, 포항과 영천을 잇는 국도가 개설되어 교통의 요지가 되었

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진 만큼 스승들의 세수도 점점 쌓여, 이제는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안주화화 전수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통리원에서 상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선림사(주교 심지장 전수)'를 방문했다. 기로스승이신 보원 정사와 심지장 전수가 교화를 펼치는 사원이다. 사원문을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공원에 온듯 한 선림사는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빗질을 하고, 나무와 꽃을 가꾸는 보원 정사님의 세심한 손길과 정성으로 이룬 불국도였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두 스승님께 감사의 문언을 드리고, 지난 공사 결과와 교도들의 교화에 관한 애로점을 청취하고 증무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의 이번 방문은 기로스승으로 수행에만 정진하지 못하고, 교화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스승님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현황, 그리고 애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정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스승들의 피나는 용맹 정진은 지금의 총지종을 든든히 바치는 기둥인 것이다. 부디 건강하시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기를 전 교도들과 함께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한다. 밀양,경주,포항-김종열 기자.



▲ 경주 수계사



▲ 밀양 일상사 본존

시무교육 「교화실무」 강의

기로스승 지회심 전수



▲ 기로스승 지회심 전수의 '교화실무'교육

8월 27일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기로스승 지회심 전수가 시무들을 대상으로 '교화실무'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지회심 스승은 사원에서 교화를 담당하면서 생긴 사

연을 바탕으로 시무들이 스승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수행자의 자세'를 1시간 20분에 걸쳐 강의했다. 첫째, 승직자는 철저한 수행을 하여야 한다. 승직자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사분정진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을 하며, 수행에 있어서 교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둘째, 승직자는 계행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승직자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승직자

로서 지켜야 할 계행을 철저히 지켜, 교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셋째, 승직자는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 승직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 까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승직자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일들은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점들을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다섯째, 승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욕과 하심하여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모든 교도들이 스승의 모범을 보고 따라하고, 이것이 교화를 위한 근본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총지종 전 중앙총의회 의장

대자행 지수 제1주기 추모 법회

8월 19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전국의 스승 및 교도 동참

원정 대성사와 함께 불교총지종 창종을 함께한 대자행(大慈行) 지수의 1주기 추모 법회가 총기 44년 8월 19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봉행되었다. 기로스승을 비롯한 전국의 스승 및 교도가 동참한 가운데, 재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법회는 훈향정공과 헌화에 이어 총지종 정통의께에 따라 진행되었다.

원등원 전수는 추신사에서 "스승님께서 열반하신 휘일을 맞이하여 생존하시었을 때를 추모하오니 망극한 은혜 값을 길이 없나이다. 오직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추복하옵고 이제 간소한 법식과 화과련을 이루었사오니 생존하실 때와 같이 강림

하시와 흥향 하시옵소서"라며 대쪽같은 성격으로 진인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신 스승의 모습을 떠올렸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에서 "어름 삼복더위에도 교화의 현장에서 용맹정진하시는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대자행 지수님이 열반하신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총지종을 입교개종(立教開宗)하신 원정 대성사님과 창종 초기를 함께하신 대자행 지수님과 열반하신 모든 스승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총지종의 교화 발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총지종 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합니다."며 선대 스승님들의 유훈을 이어받아 용맹정진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경북 달성 출신인 대자행 지수는 불교총지종의 창종을 같이한 스승들 중의 한분이다. 불교총지종이 1972년 12월 24일 서울 상봉동 서울 선교부를 개설하고 개종불사 겸 창종식을 거행할 때 함께하신 대자행 지수는 창종 원년 12월 29일 부로 청주선교부 주교로 임명되어 정통밀교 총지종 교화의 문을 열었다. 불교총지종 재단법인 초대 이사, 종량자문위원, 응신서원당 주교, 중앙총의회 의장, 지인사 주교를 거쳐 1990년 기로원에 진원하였다.

제11회 경로법회

총기 44년 9월 21일~22일(일~화)

제11회 총지종 경로법회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경로, 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 법회에는
초청 공연, 교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 소 : 경주 대명리조트
준 비 물 : 세면도구와 여벌의 옷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6 (역삼2동 778-2)
Tel: 02-552-1090~3 www.chongji.or.kr



색다른 사위와 며느리 고르기

석존께서 사위국에 있을 때의 일이다. 승단에는 약간 지혜가 부족한 두명의 노 수행자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출가했고, 다른 하나는 부인과 딸을 버리고 출가 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행을 하다, 사위국으로 돌아와 같은 방에서 살았다.

부인과 딸을 버리고 출가한 노수행자는 옛정을 못 잊어 먼저 살던 자기 집을 찾았다. 그의 부인은 노수행자의 모습을 보고는 큰소리로 욕을 했다. "거지꼴을 하고 왜 찾아왔소? 당신은 처자를 먹이지 못해 집을 나가지 않았소. 저가 처녀가 다 되어도 시집도 못 보내고 있는데, 인제 여승령어슬렁 기어 들어오시오. 빨리 나가시오"하며 쏘아 붙였다. 모처럼 집에 온 늙은 수행자는 마치 물건을 살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를 힘없이 뜨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도 옛날의 정이 생각나 자기 본가를 찾아갔다. 그 역시 부인에게 욕만 먹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들은 자기 방에서 외로운 수도 생활을 계속했다. 부인과 아들 버린 출가자는 그나마 약간의 지혜가 있어, 풀이 죽

은 옆의 수행자를 보고는 "어째서 경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한 집에 사는데 내게 말을 안 하면 누구에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딸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한편 아들을 버린 수행자는 이를 듣고 자기와 같은 신세에 놀라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어떻소.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켜 부부로 살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도 행복 할 것 같습니다." 하자 딸을 버린 수행자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다음날 각자 자기집으로 찾아갔다. 딸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는 부인에게, "우리 좋은 사위감을 구했소" 하니 "도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는 아무 이름이나 대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말했다. 처도 딸도 좋아했다. 한편 아들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도 집에 가서 처에게 말하기를 "좋은 며느리 감을 골랐다."하니 "도대체 누구의 딸입니까?" 그 역시 아무 이

름이나 대고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부인과 아들은 서둘러 혼례 준비를 했다.

마침내 두 늙은 수도자들의 아들과 딸은 좋은 날을 골라서 결혼식을 거행했다. 두 수행자는 매우 기뻐하고, 그 후로도 더욱 친해져 한방에서 살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두 수행자들도 만사가 잘 되었겠지만, 그들은 출가한 몸이며 수도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수행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찡그리고 그들을 책망했다. 그리고 이 일을 부처님께 고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들은 현생 뿐 만 아니라 전생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옛날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옛날 하라나국의 하라나성에 아무리 삶아도 익지 않는 콩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콩을 가지고 시장으로 팔러 나갔다. 어느 날 그는 콩을 가지고 시장으로 팔러 갔다. 누구하나 그 콩을 사려하지 않았다. 그 옆에 나귀를 팔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팔리지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콩을 팔러온 사람은 나귀를 팔러온 사람에게 콩과 나귀를 서로 바꾸

자고 제안했다.

"어떻습니까. 내 콩하고 당신 나귀를 바꾸면." "좋습니다. 바꾸기로 합시다." 서로 콩과 나귀를 교환했다.

콩을 가졌던 사람은 나귀를 얻어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십 여 년이나 불에 삶아도, 장작이 다타 없어져도 익지 않는 콩을, 내 이를 전부 판 것이다."

이것을 들은 나귀를 가졌던 사나이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나다, 다리가 넷이 있고 털빛은 좋으나, 짐을 싣고 걸리면, 바늘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는 나귀다."

콩을 가졌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엉덩이에 천 번의 맬을 때리고, 머리에 네치의 침을 놓아, 게으른 나귀를 움직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나귀를 가졌던 살마가 벌떡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앞발을 세워서 가만히, 뒷발을 번쩍 들어 차서, 내 앞니를 부러뜨려야만, 비로소 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콩을 가졌던 사내는 이미 상대를 안 하고,

이제는 나귀에게 위협을 주었다.

"모기나 독충에 물렸을 때 쫓는 꼬리를 썩도록 잘라서 너에게 고통을 주리라.

나귀는 대답하기를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귀중한 꼬리를 잘라버리려고, 죽어도 안 잘리겠다."

그는 이 나귀를 위협해도 소용없음을 알고, 대신 달래기로 했다.

"백설 같이 흰 얼굴에, 목소리가 고운 암 나귀를, 네 처로 삼아서 같이 숲에서 놀게 하겠다."

나귀는 이를 듣고 좋아서 "하루 천리라도 가겠습니다. 처를 얻는다는 말만 들어도, 나는 힘이 용솟음칩니다."

그 때의 두 사나이가 현재의 늙은 두 수도자다. 그 때의 나귀가 현재의 수도자의 아들이다. 그 때 서로를 속이면서 좋아했듯이, 지금도 서로를 속이고 좋아하고 있다.

마사승지물제(摩訶僧祇律第9)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야 한다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인 인간은, 걸핏하면 세상만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식으로 오만 방자한 모습을 자주 연출해 왔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며, 만물의 영장인 만큼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자기를 좋을 대로 해도 좋다는 아전

대로만 해석해서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알음알이에만 기대어 불법을 해석하려 든다면,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지구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해탈에 이르고자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몸과 마음을 내던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된 일이 찾아와 주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일이 잘되게 해 달라, 돈을 벌게 해 달라, 건강하게 해

실은 아무것도 바친게 없으며,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와 헌금, 시주는 부처님을 향한 시끄러운 애절일 뿐이다. 제 아무리 손짓하고 목청을 높여 부른다 해도 건너편 언덕이 내게 다가오지 않듯이, 부처님은 내 곁에 오지 않고 거기 그렇게 계시 뿐이다.

무용지물이다. 자의식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관념의 죽음이다. 관념의 죽음은 좀처럼 수용기 어려운 자아부정의 처절한 작업을 요구한다. 아상과 아만을 깰 때까지 버서 버리는 일, 이제 더 이상 '나'와 '나의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나를 부정해야 한다. 티끌 같은 찌꺼기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의식의 설거지를 행해야 한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한다. 내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배를 타고 선정과 반야의 다리를 건너 그곳으로 가야 한다.

인수식 해석이 역사상 최초로 벼락을 맞은 것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아홉 개의 별들 중 세 번째로 돌고 있는 작고 푸른 별이라는 발견은, 인간중심주의의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 눈에 보이는

함이다. 그러나 자신이 건너편 저 언덕에 이를 생각은 내지 않고 언덕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고자 역지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와 거리가 있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정진하기를 포기하고 마치 피안에 도달한 양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는 일이 많다. 때로는 자신을 깨달은

달라, 기도하고 빌고 호소한다. 헌금하고 시주하고 공양물을 바치고 갈구하고 애원한다. 이만큼 믿음을 표시 했으니 그 보답을 해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부추기고 강요한다. 무엇을 갖다 바치든 부처님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본래 '내 것'이란 없다고 가르치신 부처님이 아닌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쳐도

내가 그곳으로 가야한다. 내가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배를 타고 선정과 반야의 다리를 건너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통행증을 구입해야 한다. 내 몸 살림에 집착하는 자의식, 내 의식 살림에 집착하는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표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 피안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다. 그밖에는 어떤 통행증도

전 신문인 김시행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체제법의 본질을 인연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지진으로 24년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시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상계 만다라 +대장계 만다라)

33cm X 33cm (표지 포함)
30,000원



태장계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고 양귀머리(하)의 하나로 정화하여 -
[대]비 파장성 만다라이다.
대입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마가 그때 속에서 삼각되어 가는 것이 비유쳐
대입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고 양귀머리(하)의 하나로 서파다라라고도 하-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종쟁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가 등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갈등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표지 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박물관 순례

불교와 함께 전래된 천년의 종이 한지(韓紙)

한지의 전통과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주 한지 박물관」

한지(韓紙), 우리의 전통 종이를 부르는 고유명사다. 제지술을 발명한 중국에서 도입되어 이를 우리의 재료와 방식으로 더 질기고 오래가는 종이를 만든 것이다.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와는 여러모로 다른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문방사우(文房四友) 중의 하나인 한지는 우리 조상들과 가장 친근하게 지내온 존재이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지는 우수한 품질로 일찍부터 이웃 나라로 수출 되었다. 주 재료를 다펀나무를 사용하여 흔히 '닥종이'로도 불린다.



▲ 전주 한지 박물관 전경



▲ 한지 역사관



▲ 한지 만들기 체험

불교전래와 같은 제지술

종이의 전래는 불교와 같이 한다. 불교의 전래는 경전과 함께한다. 자연스럽게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쉽게도 정확한 기록은 없다. 일본서기의 내용에 610년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에 종이 생산 기술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삼국시대에 이미 제지술이 크게 발달하였음을 추정한다.

특히 불국사 석가탑 해체 과정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라니'는 한지를 말아 소탑 속에 봉안한 것이다. 즉 밀교의 다라니를 우리 한지에 기록하여 전해진 최초의 유물이다. 즉 우리 종이의 역사는 밀교의 전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많은 불사들이 행해진다. 특히 11세기에 들어 확대된 불경조판 사업으로 종이 생산기술은 크게 발전한다.

국가에서는 제지기술자를 '지장(紙匠)'이라 부르고 이들을 모아 공방을 만들고, 기술 발전을 후원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제지술이 중요한 국가 수공업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다. 1415년 국가가 운영하는 조지소(造紙所)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의 종이 생산기술이 발달하여 우수한 품질의 종이가 생산된다. 한지를 주 재료로 다양한 종이공예품들도 생산되기 시작한다.

한지의 역사를 한눈에

전주한지박물관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내에 위치한다. 신문용지 및 출판용지를 생산하는 '전주페이퍼'는 우리 전통 한지 문화와 현대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지의 모습을 선보이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7년부터 종이박물관을 전주한지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한지공예품, 한지 제작도구, 고문서, 고서적 등 한지관련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한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전을 개최하여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환한 웃음으로 환영한다. 관람순서와 팸플릿을 주고 전시관 입구로 안내한다. 전시실로는 한지역사관, 한지미래관, 기획전시실, 한지생활관, 한지재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지역사관에는 인류가 기록을 위해 사용한 다양한 재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중국의 갑골문, 죽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이집트의 파피루스, 고대 서양의 양피지, 인도의 패엽경을 통해 기록과 수단에 대한 역사를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한지의 출발과 무구정광대다라니, 직지심경 등 우리 종이로 기록한 불경과 고문서들을 소개하고, 한지의 제작과정, 재료에 따른 분류 등을 소개한다.



▲ 석가탑 사리 장엄구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

이때 삶은 액으로 잿물(벚짚, 메밀대, 콩대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을 사용하였다. 요즘은 가성소다, 소다회 등을 사용한다.(닥살기)

삶아진 백피를 흐르는 물에 담가 잿물기를 빼고, 2-3일 정도 골고루 뒤집으면서 말리면 하얗게 표백이 된다.(씻기 및 띄우기)

세척과 표백이 끝난 백닥을 물 속에서 건져내어 원료에 남아있는 표피, 티끌리 등의 잡티를 일일이 손으로 골라낸다. 한 사람의 작업량이 하루 1Kg 불과 하므로 한지 제조과정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티 고르기)

티를 골라 낸 원료를 물을 짜낸 후 다펀이나 나무판 같은 평평한 곳에 올려두고, 1-2시간 정도 골고루 두들겨 주면 섬유질이 물에 잘 풀어지는 상태로 된다.(두드리기)

잘 두들겨진 원료를 종이 뜨는 지통에 넣은 후, 막대기로 잘 저어 고르게 분산 시킨다. 이때 섬유끼리의 분산과 종이를 때 밭에서 물 빠짐을 잘 조절 할 수 있도록 다펀을 넣은 후 다시 잘 저어 준다.(원료 넣기)

원료와 다펀이 잘 혼합되어 있는 지통에 종이 뜨는 밭을 담고 전후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떠낸다. 떠낸 종이 사이사이에는 베게로 왕골을 끼워서 나중에 떼 내기 쉽게 해준다. 전통기법인 외발 뜨기는 하나의 밭에 밭을 끝부분을 매단 후, 먼저 앞 물을 떠서 뒤로 버리고, 좌우로 흔들어 떠낸 옆 물을 떠서 반대쪽으로 버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종이를 떠낸 후, 2장을 반대방향으로 겹쳐서 1장의 종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종이 뜨기)

떠낸 종이를 쌓아가다가 일정한 높이가 되면 널판지 사이에 넣은 후, 무거운 돌을 올려 두거나,

지렛대를 사용해 하룻밤 동안 눌러서 물을 빼준다.(물빼기)

물기를 빼낸 종이는 한 장씩 떼내어 말린다. 옛날에는 방바닥, 흙벽, 목판등에 널어서 말렸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철판을 가열하여 말리는 방식을 사용한다.(말리기)

약간 덜마른 종이를 포개거나 풀칠을 하여 붙여 디딜방이나 방망이로 두들겨서 종이가 치밀하고 매끄러우며 윤기가 나도록 해주는 한지 고유의 과정인 다듬이질을 한다. 현재도 장판지 제조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도침)

자연 소재인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등에서 얻는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종이에 직접 물들이거나 원료를 넣어 끓여서 물을 들이기도 한다. 염색한 색지는 책지, 편지지, 봉투 등은 물론 지공예품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물들이기)

한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하는 100% 수작업의 방식으로 생산된다. 지금은 일부 과정이 기계화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장인들은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 백번의 손길이 가야 만들어진다고 한지를 백지(百紙)라고도 부른다. 이런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천년의 종이' 한지는 두껍고 단단하며, 광택이 나고 수명이 길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탄력을 지녀 우리민족의 강인하고 순결한 정신과도 상통한다.

한동안 서양 종이와 화선지에 그 자리를 내주고 명맥을 잃었던 한지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다. 천년이상 보존이 가능한 대표적인 중성지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주한지박물관=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광평로 590길 83 역삼역과 5단지 아파트 권역동 1층
문의: 02-445-2326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그의 작품에서 불교의 향내를 맡다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 전」 부산시립미술관 2층서 9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천공의 성 라퓨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이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지 스튜디오 지브리가 창조해낸 작품들이 부산으로 찾아왔다.

9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리는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 전-부분을 보면 전체가 보인다’가 부산시립미술관 2층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총 450점의 원화와 다수의 입체모형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에 리얼리티를 불어 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지보드, 미술설정, 미술보드, 배경화 등의 귀중한 원화와 입체 모형이 함께 전시되어 스튜디오 지브리가 창조한 세계에 등장하는 건축물의 설계 원인과 상징적 위치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목욕탕 외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껏 한 번도 해외에서 전시된 적이 없었던,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기획전’을 위해 제작된 입체모형 다섯 점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천공의 성 라퓨타’의 디오라마(Diorama),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자 가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포장 마차, ‘귀를 기울이면’의 지구상점 실측 세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모형들은 일본 장인들의 손을 거쳐 섬세하게 제작된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영화에 등장했던 건축물에 보다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전〉은 총 8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섹션 ‘두 감독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명감독인 다카하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근작인 ‘가우야 공주 이야기’, ‘바람이 분다’로 구성된다. 또 해외 수출을 통해 큰 호평을 받은 텔레비전 장편시리즈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주요 배경이 축소 입체 모형인 디오라마(Diorama)로 전시되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섹션 ‘뜻’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차세대 감독들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미야자키 고로’의 ‘코쿠리코 언덕에서’, ‘게드전기-어시시의 전설’과 ‘요네바야시 히로마시’의 ‘추억의 마니’, ‘마루 및 아리테이’ 그리고 지브리의 작고한 천재 감독 ‘곤도

요시후미’(1950~1998)의 ‘귀를 기울이면’의 각 작품의 원화와 세 점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섹션 ‘프로듀서’에서는 ‘스즈키 도시오’ 프로듀서의 눈으로 본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 속 건축의 비밀을 엿볼 수 있으며, 지브리 미술관의 모형이 전시된다.

네 번째 섹션 ‘서양’은 유럽의 건축으로, 지브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자 가게 실측 세트, ‘마녀 배달부 키키’의 구조키 빵집 미니어처, ‘붉은 돼지’의 원화가 전시된다.

다섯 번째 섹션 ‘혼돈’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의 서양과 동양의 건축양식이 혼합된 ‘목욕탕’ 모형이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크기로 전시되어 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심지인 마녀 유바바의 목욕탕은 온갖 신들로 늘 대만원이다. 또한 혼돈의 양식을 대표하는 간판건축을 볼 수 있는 기묘한 거리의 실측 세트가 전시된다. 일본 시코쿠 섬 에히메현의 도시를 본따 만들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 섹션 ‘보이지 않는 수작업’에서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은 일본과 유럽의 건축 도구를 볼 수 있으며, 이어지는 일곱 번째 섹션 ‘일본’에는 일본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원화와 모형들이 등장한다. 이 섹션에는 ‘다카하타 이사오’의 ‘이웃집 야마다군’,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추억은 방울방울’의 원화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노노케 히메’의 원화 그리고 ‘벼랑위의 포도’의 소스케의 집 모형이 전시된다. 그리고 일본 주거 양식의 특징인 다다미 방이 돋보이는 ‘이웃집 토도로’의 사쓰키와 메이의 집 모형도 전시된다. 여덟 번째 섹션 ‘공상과 예감’에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초기 작품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천공의 성 라퓨타’ 그리고 뮤직비디오 ‘은 유어 마크’의 원화와 모형이 전시된다. 특히 ‘천공의 성 라퓨타’의 주인공 파츠가 일하는 탄광의 모형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동경해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마지막으로 ‘WORK SHOP’은 관람객이 자신의 이상의 집을 만들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다.

8개의 섹션을 따라 스튜디오 지브리의 영화 속 건축물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그 건축물들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이미지 보드를 통해 그 세계관을 완성하는 건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에 관심이 가고 보면 볼수록 정감 가는 이유는 작품에 흐르는 민속신앙과 절묘하게 버무려진 불교사상 때문이 아닐까. 그의 작품에는 불교적인 소재와 주제가 적절히 녹아들어있다. 옥수수를 들고 들판을 휘어가는 메이 뒤로 스치듯 배경에 녹아든 지장보살상이 보이는 ‘이웃집 토도로’나 중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타고 유바바의 세상과 제니아의 세상을 연결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은 언뜻언뜻 불교의 모습을 드러낸다. ‘모노노케 히메’에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통 샤머니즘과 불교의 대 격돌을 환경과 대주제 속에서 같이 보여주며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불교적인 센스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기차 '중도호'내부

에서 더 깊게 드러난다. 배경 중 중심지인 목욕탕은 대만 용산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웅장하면서도 복층의 섬세한 구조는 목욕탕에서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 속세의 찌든 번뇌와 무명업보를 벗어버리는 불교사상을 중첩해낸다.

터널을 지나는 것에서 출발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장면은 이미 차안과 피안의 세계를 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차안의 세계에서 불렀던 이름도 정체성도 피안의 세계에서는 무용지물. 차안을 살아가는 속세의 인물이 번뇌를 떨치지 못하고 우연히 떨어진 피안의 세계는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할지 깨달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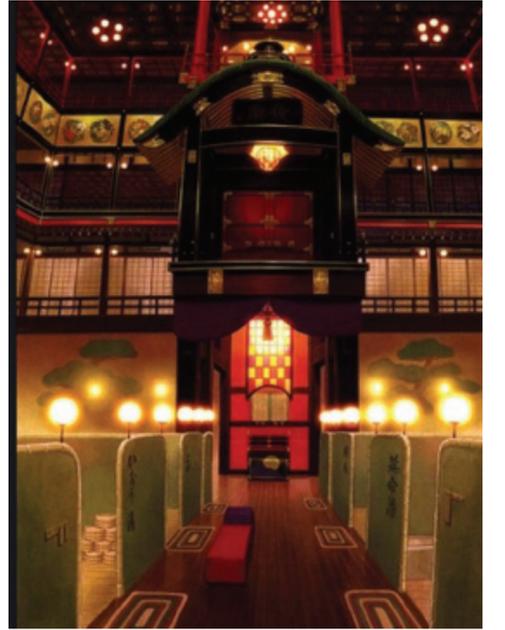
현실에서 치히로는 터널 너머 세상에서는 센이라고 불린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마녀 유바바는 치히로의 이름을 센으로 바꾸며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 센이 된 치히로에게 이름을 잊어버리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알려준 하쿠. 소년의 모습이지만 그는 원래 지금은 없어진 강의 신으로 용이다. 하쿠가 치히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근원에는 그 옛날 언젠가 치히로와 함께 했던 업과 인연의 고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화평론가 하재봉씨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중도 기차로 대비되는 중도사상을 읽어낸다. 그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에 나타난 불교적 세계관’에서 “은 곳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이름의 소중한 가치와 명예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경종이다.”라고 지적한다.

무명에 휩싸여 참나를 잃고 삶에 매몰된 이들에게 보내는 경종이라면 이제 깨달음의 소리를 들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거대한 쓰레기더미가 된 강의 신이 유바바의 목욕탕에서 그 모든 쓰레기를 벗어내고 다시 깨끗한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자. 번뇌도 집착도 내려놓고 겉모습에 혹하지 말고 참나를 찾아가는 거장의 엄중한 메시지를.

부대 행사로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중 엄선된 세 편의 작품도 매달 한편씩 상영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자. 9월 5일, 10월 2일, 10월 9일 만날 수 있다.

구성작가 강지연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목욕탕 모형



▲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 건축전 포스터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전사 수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9)

태장계만다라의 일곱 번째 궁실(宮室), 『제개장원(除蓋障院)』의 제존(諸尊)

제개장원(除蓋障院)은 태장계만다라의 오른쪽, 즉 남방(南方)에 자리잡고 있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개장원은 일체 모든 번뇌와 장애(障害)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도상(圖上)을 살펴보면,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오른쪽 옆에 금강수원(金剛手院)이 있고, 또 그 오른쪽 옆에 제개장원(除蓋障院)이 있다.

중생을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살이 제개장보살

이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가운데 지혜를 드러내어 중생을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비로자나부처님이 계시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은 자비와 지혜의 세계이며,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를 드러내어 중생을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금강수원(金剛手院)이며, 이를 통해 중생의 온갖 번뇌와 장애를 끊어 없애주는 것이 제개장원(除蓋障院)이다. 다시 말해서 금강수원이 커다란 지혜를 나타내는 것에 이어서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중대팔엽원의 지혜가 금강수원에서 발현되고 이것이 제개장원에서는 미혹과 무명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개장원은 금강수원(金剛手院)의 지혜를 통하여 실상(實相)을 깨달은 결과로써 모든 번뇌와 장애를 없애는 세계이며 특히 지혜의 활동을 일으키는 세계라 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고 지혜를 증득케 한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보살은 모두 지혜와 관련이 있다.

주존(主尊)인 제개장보살을 중심으로 모두 아홉 분의 보살이 모셔져 있다

제개장원에는 모두 9분의 보살이 있는데, 주존(主尊)인 제개장보살을 중심으로 비민보살(悲愍菩薩), 파악취보살(破惡趣菩薩), 시무외보살(施無畏菩薩), 현호보살(賢護菩薩), 부사의혜보살(不思議慧菩薩), 비민혜보살(悲愍慧菩薩), 자발생보살(慈發生菩薩), 절제열뇌보살(折諸熱惱菩薩), 일광보살(日光菩薩) 등의 여덟 분의 보살이 권속을 이루고 있다. 보살들의 존명(尊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번뇌, 두려움, 악취(惡趣)를 끊으며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자비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개장보살은 일체 중생의 온갖 번뇌를 제거하는 보살로서 그러한 활동을 위하여 항상 자신은 제개장삼매(除蓋障三昧)라 하는데, 일체 번뇌가 제거되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번뇌가 제거되었을 때 일체중생의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번뇌는 중생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정신작용의 총칭

번뇌는 마음의 나쁜 작용으로서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정신작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를 혹(惑)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근본번뇌인 삼독심(三毒心)이 있다. 탐(貪), 성(瞋), 어리석음(癡)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삶과 고통과 번뇌가 삼독심에 의해 시작된다. 이러한 번뇌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 속에서 삼독심은 사라진다. 그러한 생활을 수행(修行)이라 한다.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말씀을 깨치고 몸과 마음으로 닦아 실천하는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인연관(因緣觀)을 통해 우치(愚癡)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다. 실천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삼업(三業)을 청정히 하는 것이며, 확대하자면 십선업(十善業)을 닦는 것이다. 이렇듯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아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중대팔엽원-금강수원-제개장원의 순서는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하여 중생의 번뇌를 없앤다는 도식을 나타낸 것

이러한 과정을 태장계만다라에서 중대팔엽원→금강수원→제개장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림1)과 그림2)에서 처럼 왼쪽이 중대팔엽원이고, 중간이 금강수원이며, 오른쪽의 네모칸이 제개장원이다.

제개장원의 주존(主尊)인 제개장보살은 그림3)과 같이 왼손에 보당(寶幢)을 들고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하고서 적연화(赤蓮華) 위에 앉아 계신다. 중생을 미혹에서 건져내기 위한 자재이자 모습이다. 주존(主尊)인 제개장보살에 대해 다른 설이 있는데, 제개장원이 아니라 지장원에 그려진다는 설도 있고, 제개장보살 대신에 부사의혜보살(不思議慧菩薩)을 제개장원의 주존(主尊)으로 삼는다는 설도 있다.

경전과 현도만다라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보살을 나타내는 진언중자는 '아호'이다. 항복의 의미다. 즉, 중생의 미혹, 번뇌를 조복, 항복시킨다는 뜻을 상징하는 종자(種子)이다. 이 보살을 상징하는 결인(結印)을 제개장인(除蓋障印)이라 하는데, 그림4)와 같이 좌우 양손의 엄지와 무명지, 새끼 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접어 넣고, 두 번째 손가락과 중지(中指)를 세워 서로 맞대어 붙이는 손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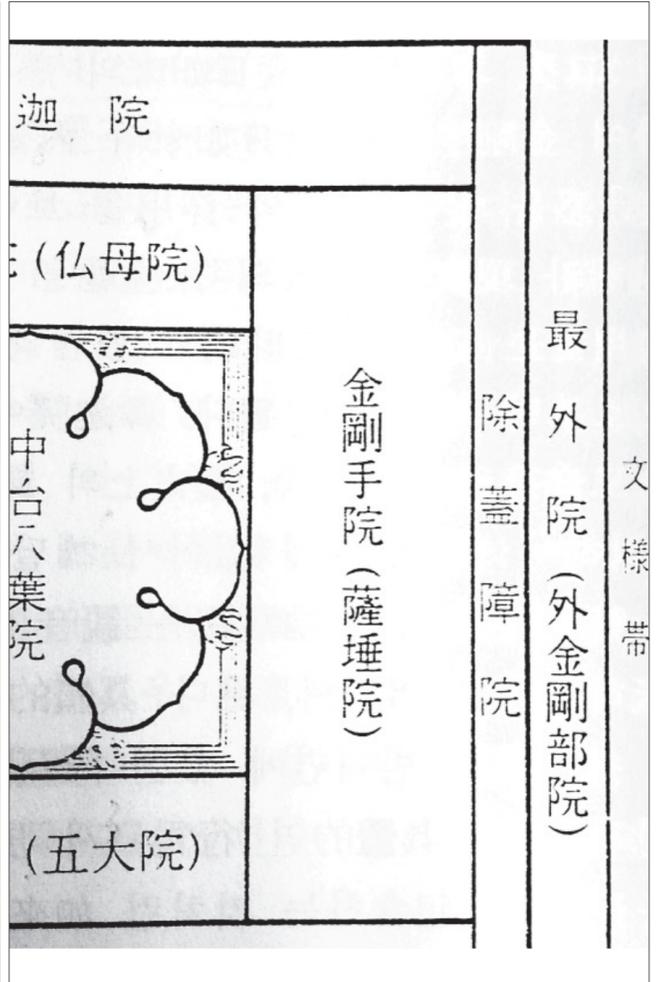
근심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어 머리가 복잡할 때는 제개장보살을 떠올리며, 손으로는 제개장인을 맺고 진언중자 '아호'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고민하지 말자. 제행(諸行)은 무상(無常)한 것이다.

흔히 '바위에 새기지 말고, 바람에 새기고 물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 '바위에 새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바람에도 새기지 말고 물에도 새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세상의 그 어느 곳, 그 어느 것에...

(다음호에서는 허공정원의 제존(諸尊)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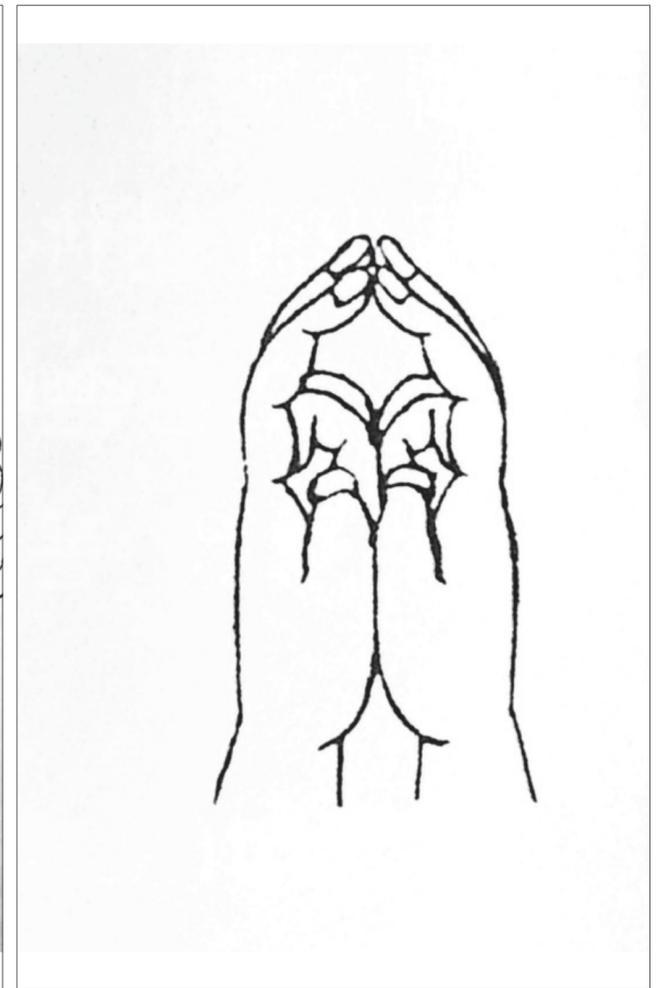
▲ 그림1) 태장계만다라의 제개장원 (검은색 네모칸이 제개장원이다)



▲ 그림2) 제개장원의 구조



▲ 그림3) 제개장보살



▲ 그림4) 제개장보살의 제개장인

유물로보는
비로자나불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飛來寺木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 대전 대덕구 비래골길 47-74, 비래사 (비래동)
시대 : 조선시대



▲ 유형문화재 제30호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양 어깨를 다 덮은 옷에 두 손을 모아 천 지권을 한 비로자나불 좌상이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내밀고, 시선을 아래로 두어 굽어보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으며, 네모지면서도 둥그스름한 얼굴은 차려올려진 입 끝으로 인해 미소를 머금은 듯하다. 적당히 큰 귀를 갖춘 머리에는 큼직한 반원형의 중간 계주(계珠)와 정상 계주를 갖추었으며, 목에는 3줄의 주름인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둥근 어깨와 적당히 부푼 가슴, 넓어진 무릎으로 부피 감 있으면서도 안정된 자

세에, 신체 각 부의 알맞은 비례와 자연스러운 옷주름 표현으로 사실성이 엿보인다. 특히 가슴 앞에서 모아 감싸쥐고 있는 두 손과 이목구비의 표현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마치 인체를 묘사한 듯한 사실적 조각기법이다. 개금중수기와 목판본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다라니가 발견되었으며, 바닥에는 1650년 조성한 사실, 즉 「순지팔년경인...수법화원 무염비구...」(順治八年庚寅...受法書員 無染比丘...)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 75 화

독실한 정진은

글/그림 정수일

cafe.daum.net/carissam

그 복보(福報)도 빠르다.

1 내 손과 발을 이용하여 연주 못 할 악기가 없지!

2 정말 잘 한다. 하지만 발은 못 갈 거야!

3 해봐! 난 간다.

4 아무리 악기를 연주해도 농기구가 움직여 주질 않아.

5 정말 소 좀 빌려주세요.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데.

6 종소리 1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연주를 해준다면 빌려주지.

7 좋아, 좋아. 카! 역시 최고의 음악가군. 좋아, 좋아.

8 으윽! 새벽에도 계속 들으니 짜증난다.

9 아휴~ 즐려.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4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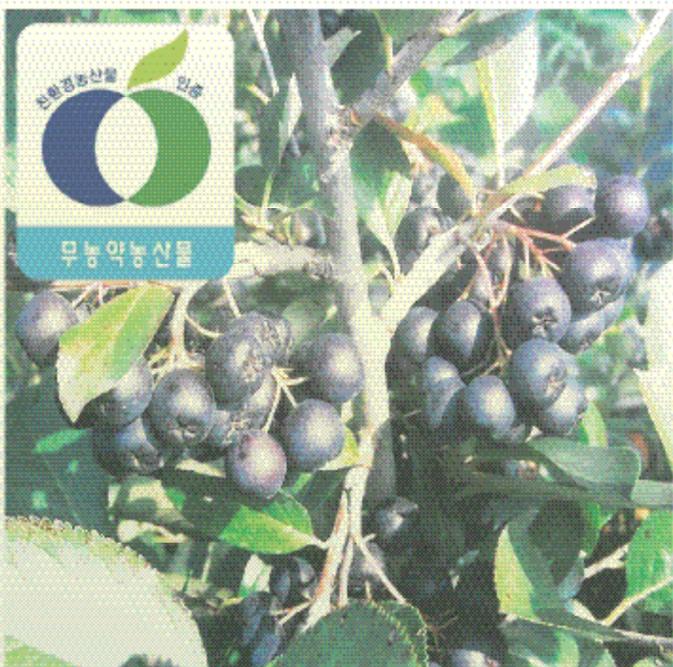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16. 부월수(斧鉞手) 진언



음 미라야 미라야 사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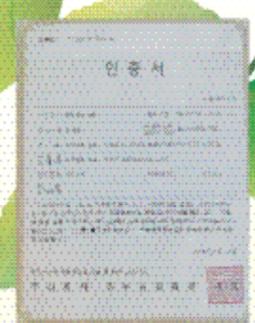
만약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관재를 벗어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룡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종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5,000원
무료배송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면역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방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